

# 祖逖의 인물형상

- 《世說新語》와 《晉書》를 중심으로 -

김진영\*

<目 次>

- 1. 머리말
- 2. 祖逖의 인물형상
  - 1) 祖逖이 처했던 시대상황
  - 2) 인물형상
- 3. 맺음말

## 1. 머리말

東晉은 八王之 난 이후 西晉 황실의 일파가 華北으로부터 관료와 군대를 거느리고 강남으로 건너와 언젠가는 중원의 失地를 회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일시적으로 정착한 왕조이다. 나라를 세운 이후 소수의 안정된 문벌귀족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원을 회복하고자 여러 차례 대외원정을 벌였으나 정권내부의 갈등으로 오히려 기회를 잡지 못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당시 황실은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즉 자신들의 故土를 차지하고 있는 異民族을 먼저 축출하는 사람이 '稱帝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東晉 중·말기에 더욱 현저하게 되어 일부 야심가들은 모두 北伐로 공을 세우고 명실상부한 황제가 되려고

\*인덕대학 중국어과 조교수

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東晉의 황실과 중앙정부의 집정자들은 점차 전쟁을 싫어하게 되고, 지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지하려고 하였다. 祖逖으로부터 庾亮, 庾翼, 桓溫 그리고 宋을 건국한 劉裕 등은 東晉의 북벌을 추진했던 대표적 인물들이었지만 조정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지 못했다. 이는 북벌을 진행한 대다수 장수들 개인의 야심이 잃어버린 故土를 회복하고자 하는 진정한 애국심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벌에 참여했던 여러 인물 가운데 祖逖은 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개인적 야심보다는 순수한 우국충정으로 북벌을 진행하였으며, 그가 죽은 후에 東晉이 몇 차례 북벌을 하였어도 祖逖과 같이 忠心이었던 장수는 더 이상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sup>1)</sup>

한편 東晉의 元帝가 강남으로 내려와 건국하는데 있어 王導와 그 사촌형 王敦의 공은 누구보다 지대하였다. 王氏는 琅琊(지금의 山東 臨沂縣 북쪽) 출신으로 북방의 명문귀족이었다. 元帝는 이들을 무척 신임하여 정치는 王導에게, 군사는 王敦에게 맡겼기 때문에 당시 “王與馬, 共天下(왕씨와 사마씨가 천하를 함께 다스린다)”<sup>2)</sup>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王敦의 세력은 막강하였다.

왕대장군(王敦)이 처음 도성으로 [장강을 따라 공격해] 내려가 [정사를] 처결하고 [관리를] 배치할 생각이 있어서, 먼저 참군을 보내 조정에 고하고 당시 명사들에게 그 뜻을 퍼뜨렸다. 조거기(祖逖)는 아직 수춘을 다스리기 전이었는데, 눈을 부릅뜨고 성난 목소리로 사자에게 말하길 : “그대는 아혹(王敦)에게 [이렇게] 전하라! 곧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3천 병사를 이끌고 가서 장창 자루를 휘둘러 [장강 상류로] 올라가게 만들테다!”라고 했다. 왕대장군은 그 말을 듣고 [계획했던 일을] 그만 두었다.<sup>3)</sup>

대장군은 지금의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며, 祖逖은 일개 지방의 장수로서 최전선에서 북벌을 위해 대장군 王敦의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었다. 그러한 그가 王敦의

1)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p. 56.

2) 《晉書》 卷98 〈王敦傳〉

3) 王大將軍始欲下都, 更處分樹置, 先遣參軍告朝廷, 諷旨時賢, 祖車騎尚未鎮壽春, 瞋目厲聲, 語使人曰: 「卿語阿黑, 何敢不遜! 催攝面去! 須臾不爾, 我將三千兵槩脚上。」王聞之而止. 《世說新語》 豪爽篇 6조.

小名을 부르며 호통치는 모습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무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東晉의 건국공신이면서 군권의 실세인 王敦이 祖逖이 두려워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가 祖逖이 죽자 비로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 정도였고, 그의 죽음이 東晉 정권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祖逖이 東晉의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4)</sup> 그러나 이를 포함한 그의 긍정적이고 위대한 모습이 《晉書》 卷62 〈祖逖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世說新語》에는 상대적으로 기사가 적은데, 이는 문벌을 중시하던 당시 시대분위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sup>5)</sup>. 西漢末부터 형성된 莊園이라는 세습 재산을 배경으로 한 호족세력의 관료화, 귀족화로 인해 중국의 중요한 문화현상 중의 하나인 문벌세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世族은 東漢 이래 주도세력 내부에서 조금씩 형성되어 새롭게 등장한 官吏大族으로, 이들은 西晉과 東晉 두 시기에 걸쳐 정권을 장악하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각 종의 특권을 누렸다. 이들에 의한 경제력의 장악은 곧 정치적 지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치적 특권의 결과 문벌세력의 신장과 계급제 차별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sup>6)</sup>

본고는 이미 논자가 《中國文化研究》에 발표한 논문의 연속으로서 이번에는 《世說新語》와 《晉書》의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東晉의 명장 祖逖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물이 없는 소설은 없다. 이 점은 중국적 의미의 고대소설이나 현대적 의미의 소설 兩者 모두 마찬가지이다. 조각이나 회화와 같은 예술분야나 事物詩 같은 문학장르에는 인물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서사문학작품에는 반드시 인물이 등장한다. 동물이나 무생물이 주인공인 동화에서도 그 주인공을 의인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근대 이후 대부분의 소설이 리얼리즘이고, 소설 대부분은 인문소설로서 소설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새로운 인간형의 탐색과 인간상의 창조에 있다면 인물의 설정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世說新語》와 《晉書》가 현대적 의미의 소설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인물의 형태, 유형, 성격 등을 고찰해봄

4)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pp. 56-57.  
 5) 祖逖은 范陽 滹(지금의 河北 涿水縣) 출신으로 名門世族 출신이 아닌 북방의 舊姓大族, 즉 地方地主 출신이었으며 당시 魏晉시대는 문벌을 매우 중시하여 世族들과는 엄격한 구별을 두었다.  
 6) 楊美愛 〈世說新語新探-從世說新語探魏晉之思想社會與亡國〉: 《弘光護專學報》 1978, 6권 p. 52.

으로써 소설의 구조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7)</sup> 敘事의 중심이 사건에 있는 正史 《晉書》와 敘事의 중심이 인물에 있는 소설 《世說新語》의 내용을 함께 집중시켜 본다면 인물의 완전한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아울러 인물들의 언행과 일화가 주제별로 각각의 篇目에 분산되어 있는 《世說新語》의 경우는 縱的인 방법 즉 인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출, 분석하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인물의 완전한 형상<sup>8)</sup>을 창출해보고, 아울러 품평의 특징과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 祖逖의 인물형상

### 1) 祖逖이 처했던 시대상황

祖逖(266-321)은 字가 士稚이며 范陽 滎(지금의 河北 涿水縣) 사람으로 부친 祖武는 西晉의 太守를 지냈다. 永嘉의 亂<sup>9)</sup>당시 祖逖이 유민들을 이끌고 남하하자 東晉의 元帝가 그에게 관직을 주었다. 祖逖이 출생하기 한 해 전인 泰始 元年(265) 武帝는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일가 친척인 諸王들을 分封하였다. 이 제도는 郡을 國으로 하고, 食邑이 2만 호에 이르는 곳은 大國이라고 하여 3軍을 두어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食邑이 1만 호인 곳은 次國이라 하여 2軍을 두어 3천 명의 군대를 가졌고, 食邑이 5천 호가 되는 자는 1軍을 두어 1천 5백 명의 군대를 가졌는데, 그 해 자그마치 27명의 王이 分封되었다. 처음 諸王들은 모두 京師에서 임명되었으나 그들 모두 병권을 갖고 있어 스스로 자기 나라에서 文武官吏를

7) 金鎮永 〈世說新語의 품평을 통해 본 桓玄의 인물형상〉:《中國文化研究》 2006, 8輯 p. 196 재인용.

8) 형상(形象)이란 心中의 관념 등을 어떤 표현수단에 의하여 具象化하는 일, 또는 形狀, 形相의 의미로 쓰여 물건이나 사람의 형체와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논자가 언급하는 형상이란 후자를 가리킨다.

9) 西晉 懷帝시기(307-312)의 연호로 이 시기 이민족에 의해 일어난 일련의 반란을 가리킨다.

선택할 수 있었다. 咸寧 3년(277)에 썩은 諸王들을 각각 그들의 나라로 보내고, 그 중 일부 王들에게는 諸州의 軍事를 감독하게 하였다.<sup>10)</sup> 이러한 조치는 수시로 큰 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되어 결국 八王의 亂<sup>11)</sup>이 일어나게 된다. 永熙 元年(290) 武帝가 죽고 연소한 惠帝가 즉위하자 武帝의 황후 楊氏는 선황의 遺詔라 하여 그녀의 아버지 楊駿을 재상으로 앉히고 국정을 유린하였다. 惠帝의 황후 賈氏는 汝南王 司馬亮과 楚王 司馬瑋를 서울로 불러 올려서 楊氏 일족을 도살한 후, 연이어 司馬亮과 司馬瑋를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永寧 元年(301) 趙王 司馬倫은 賈氏 일족을 제거하고 惠帝를 폐한 후 스스로 황위에 올랐으나, 齊王 司馬冏과 成都王 司馬穎의 공격을 받아 자살하고 惠帝가 복위되었다. 그 후 長沙王 司馬乂, 東海王 司馬越, 河間王 司馬顥도 군사를 일으켰으며, 司馬越이 冏과 顥를 죽인 후, 옹립한 惠帝가 죽자 懷帝를 즉위시키면서 晉室의 諸王이 서로 골육상잔하는 16년간의 참극은 막을 내렸다. 西晉은 여러 지역에 군사적 기반을 둔 分封王들의 권력투쟁과 내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특히 元康 元年(291)부터 光熙 元年(306)까지 16년에 걸쳐 벌어진 이 八王의 亂은 西晉의 기반을 무너뜨린 결정타였으며, 諸王들이 병력보급을 위하여 끌어들이던 匈奴·鮮卑 등 북방 胡族은 그 후 華北 각지에서 성장하여 이른바 五胡十六國 난립의 주원인이 되었다. 八王의 亂 이후 匈奴의 石勒은 시국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洛陽을 향해 진군, 劉曜와 힘을 합쳐 洛陽을 함락시키고 八王의 亂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東海王 越이 옹립한 懷帝를 사로잡아 사형시켰다. 懷帝의 조카인 愍帝는 洛陽 함락의 소식을 듣고 長安에서 천자에 등극하였지만,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격을 받고는 平陽에 송치되어 죽음을 당했다. 이 시기 匈奴族 뿐 아니라 氏族, 鮮卑族 등의 異民族이 도처에서 일어나 민족간의 충돌이 진행되고 천하는 형언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결국 西晉은 무너지고 魏의 옛 도읍인 建康을 중심으로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sup>12)</sup>

10)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p. 32.

11) 皇族(司馬氏) 8명의 왕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며, 八王은 汝南王 亮·楚王 瑋·趙王 倫·齊王 冏·長沙王 乂·成都王 穎·東海王 越과 河間王 顥을 가리킨다.

祖逖은 남하한 후 東晉이 石勒과 대치하고 있을 때 높은 정치적 식견으로 정권의 안정을 위해 북벌을 간청하여 元帝는 그를 建武 元年(317) 豫州刺史로 임명하였으나 유민의 배반을 염려한 東晉 정권은 그들의 首長인 祖逖 역시 의심하여 그에게 소량의 군량미만 제공하고 병사와 무기는 일체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그는 스스로 募兵하여 그 海譙(지금의 安徽 亳縣)를 수복하였으며, 그 후 建武 3年(319) 河南 이남을 회복하여 雍丘(지금의 河南 杞縣)에 주둔하면서 황하를 경계로 여러 차례 石勒을 격퇴시켰다. 王敦 역시 북벌을 위한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를 제거하려 하였다. 다시 河北을 공략하려고 할 때 祖逖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 한 元帝는 지략이 부족한 戴淵을 도둑으로 삼아 祖逖을 통제하고자 하여 그를 자극하였고, 王敦과 劉隗가 불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한 祖逖은 憂國이라는 마음의 병으로 죽고 말았다.

## 2) 인물형상

祖逖은 원래 名門世族이 아닌 북방의 舊姓大族이었으며 대대로 봉록이 2천석인 관리집안 출신<sup>13)</sup>으로 부유한 편이었다.

祖逖은 자가 사치이며 범양 주 사람이다. 활달하고 분방하여 예의를 차리지 않았으며, 재물을 가볍게 여겨 베풀기를 좋아했다.<sup>14)</sup>

祖逖은 성격이 융통성 있고 대범하여 자질구레한 예절에 구속받지 않았다.<sup>15)</sup>

12)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中國史》(서울, 역민사, 1986) pp. 176-179. 金鑑永 〈世說新語를 통해 본 謝玄의 인물형상〉; 《中國文化研究》 2007 제11집 p. 126재인용.

13) 《晉書》 卷62 〈祖逖傳〉에 “世吏二千石”이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州의 수장인 刺史의 봉록이 600석이었고, 郡의 수장인 太守의 봉록이 2천석이었다.

14) 逖字士樞, 范陽道人. 豁蕩不修儀檢, 輕財好施. 《晉書》 卷62 〈祖逖傳〉.

15) 逖性通齊, 不拘小節. 《世說新語》 任誕篇 第23조 劉孝標 注引 《晉陽秋》.

祖逖은 도량이 넓고 대범하였으며, 의식적인 예의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숭상하던 玄學的 인생태도와 상관이 있다. 東漢 黨錮의禍 이후 三國의 투쟁, 司馬氏의 魏 찬탈, 八王의 亂, 五胡十六國의 혼전등과 아울러 민족 간, 계층 간의 내부적 갈등은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였고, 혼란한 사회와 공포정치 속에서 士人들은 老莊思想으로 전향하여 정신적 위로를 추구하며 잔혹한 현실세계로부터 도피하려 하였다. 그들의 언행은 虛靜玄遠하면서 자유분방하였고, 삶 역시 낭만과 심미적인 흥취로 충만하여 그 내재된 사상감정과 외재된 행동양식은 魏晉風流라는 독특한 시대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조거기(祖逖)가 강남으로 건너왔을 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검소하여 좋은 의복이나 물건이 없었다.<sup>16)</sup>

祖逖은 스스로 검약하였으며, 백성들에게 권농함에 있어 자신을 절제하면서 행하였다. 재산을 모으지 않았으며, 자식들은 농사를 짓고 땀감을 구하였다.<sup>17)</sup>

부유한 집안 출신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근검절약하며 스스로 술선수범하는 소탈한 모습에서 권위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식들까지도 직접 농사를 짓고 땀감을 구하게 하는 모습은 평소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깊은 인심을 얻을 수 있었다.

祖逖은 사공 劉琨과 함께 모두 호걸로 이름이 자자했다. 24세에 유곤과 함께 사주주부로 초빙되었는데, 사이가 매우 친밀하여 이불을 함께 덮고 잘 정도였다. 한밤중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함께 일어나 말하길 : “이것은 나쁜 소리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매번 세상 일을 논할때면 한밤중에 일어나 말하기를

16) 祖車騎過江時, 公私儉薄, 無好服玩. 《世說新語》 任誕篇 제23조.

17) 躬自儉約, 勸督農桑, 克己務施, 不畜資產, 子弟耕耘, 負擔樵薪. 《晉書》 卷62 〈祖逖傳〉.

: “만약 천하가 끊는 술처럼 어지러워져서 호걸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면, 나와 그대는 중원에서 서로를 피해야 한다”라고 했다.<sup>18)</sup>

왕대장군(王敦)이 처음 도성으로 [장강을 따라 공격해] 내려가 [정사를] 처결하고 [관리를] 배치할 생각이 있어서, 먼저 참군을 보내 조정에 고하고 당시 명사들에게 그 뜻을 퍼뜨렸다. 조거기(祖逖)는 아직 수춘을 다스리기 전이었는데, 눈을 부릅뜨고 성난 목소리로 사자에게 말하길 : “그대는 아후(王敦)에게 [이렇게] 전하라! 곧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3천 병사를 이끌고 가서 장창자루를 휘둘러 [장강 상류로] 올라가게 만들테다!”라고 했다. 왕대장군은 그 말을 듣고 [계획했던 일을] 그만 두었다.<sup>19)</sup>

당시 세인들은 닭은 본래 새벽에 우는 것이 정상인데 한밤중에 울면 불길한 징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祖逖은 오히려 난세가 되면 자신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젊어서부터 남다른 포부와 비장강개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북벌의 최전선에서 일개 지방 장수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장군 王敦을 호되게 질책하는 모습은 그가 영웅적 기질을 지닌 전형적 무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聞鷄起舞”<sup>20)</sup>라는 典故는 바로 《世說新語》 豪爽편 제6조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는 詩歌藝術이 매우 발전했던 시대였다. 특히 《世說新語》가 產生된 시대에는 세련미가 최고조에 달하였는데, 그 이유는 六朝의 文學이 文體에 있어 詩歌藝術의 영향으로 四字와 六字를 위주로 하는 四六駢儷文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世說新語》와 같은 敘事性的 문학작품 역시 詩와 같은 言語美를 가지게 된 것이다.<sup>21)</sup>

18) 逖與司空劉琨，俱以雄豪著名。年二十四，與琨同辟司州主簿，情好縹緲，共被而寢。中夜聞鷄鳴，俱起曰：“此非樂聲也。”每語世事，則中宵起坐，相謂曰：“若四海鼎沸，豪傑共起，吾與足下相踴中原耳！”《世說新語》 賞譽篇 第43條 劉孝標 注引《晉陽秋》。

19) 王大將軍始欲下都，更處分樹置，先遣參軍告朝廷，諷旨時賢。祖車騎尚未鎮壽春，曠目厲聲，語使人曰：“卿屬部呵黑，何敢不遜！催攝面去！須臾不爾，我將三千兵架脚令上。”王聞之而止。《世說新語》 豪爽篇 第6條。

20) 한밤중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춤을 추다. 즉 뜻을 품은 자가 때를 맞추어 분명히 일어나는 것, 또는 때가 왔음을 알고 분발해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世說新語》에는 西晉 이전의 주요 典籍 거의 모두가 典故로 사용되고 있는데,<sup>22)</sup> 이는 玄學이 유행했던 당시 魏晉시대의 분위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名士들은 학문의 수양을 매우 중시하여 대부분의 經典의 내용에 해박하였으며, 談論의 자리에서 자신의 학식정도를 과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난해한 구절들을 인용하였다. 그 결과 魏晉 名士들의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더욱 고급화되고 난해한 다량의 典故가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典故의 사용은 古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없이는 효과는 물론이고 상대의 의도조차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世說新語》의 곳곳에서 다량의 典故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귀족들의 학식과 교양의 수준이 상당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인물로 天子나 皇后를 포함하는 귀족상층부라는 사회적 범위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학식의 정도를 요구하는 典故의 사용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世說新語》가 귀족문학임을 증명하고 있다.

십사오세가 되어도 오히려 글공부를 하지 않아 형들이 그 때문에 걱정하였다. …(중략)…후에 서적들을 두루 공부하여 古書を 섭렵하였고, 京城에 있는 이들과 교우하였는데, 祖述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가 보좌의 재능이 있다고 말하였다.<sup>23)</sup>

劉琨이 조거기(祖述)를 고명하게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칭송하면서 말하길 : “[그는] 젊었을 때 王敦의 감탄을 받은 인물이다”라고 했다.<sup>24)</sup>

21) 范子燁 著 《中古人生活研究》(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1) p. 388.

22) 李在弘의 석사논문 〈世說新語의 內容과 言語詩性 研究〉 pp.111-117에 걸쳐 1954년 岡村繁이 《世說新語》의 문장과 출전을 명시한 原典을 함께 수록한 자료인 〈世說所見語言用典考〉를 토대로 일부 고사의 用典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또한 范子燁은 《中古人生活研究》 389쪽에서 《世說新語》에는 西漢 이전 典籍 총 36종이 사용되었으며, 用典 횟수가 총 325회에 이르는 통계를 내었다. 그 빈도는 다음과 같다. 《史記》(59회), 《詩經》(40회), 《論語》(37회), 《莊子》(35회), 《禮記》(29회), 《左傳》(29회), 《周易大傳》(15회), 《尚書》(13회), 《淮南子》(13회), 《老子》(11회), 《孟子》(7회), 《周易》(5회), 《爾雅》(4회), 《戰國策》(4회), 《呂氏春秋》(4회), 《韓詩外傳》(4회), 《山海經》(3회), 《周禮》(3회), 《孝經》(3회), 《春秋公羊傳》(3회), 《楚辭》(3회), 《孫子兵法》(3회), 《尚書大傳》(3회), 《荀子》(3회), 《國語》(3회), 《吳越春秋》(3회), 《說苑》(3회), 《韓非子》(3회), 《墨子》(3회), 《靈樞經》(3회), 《法言》(3회), 《新書》(3회), 《列仙傳》(3회), 《新序》(3회), 《夏小正》(3회), 《風賦》(3회).

23) 年十四五猶未知書, 諸兄每憂之. …(중략)…後乃博覽書記, 談步古今, 往來京師, 見者謂有贊世才具. 《晉書》 卷62 〈祖述傳〉.

東漢시기는 국가경영 능력이나 정치적 역량 등으로 인물을 주로 평가하였지만, 魏晉은 진솔하고 강직한 기품, 淸談寡慾한 처세태도, 준일하고 호방한 언행, 그리고 뛰어난 재능 등을 중시하였다. 祖逖은 천성적으로 수재는 아니었고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것에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장성하여서는 스스로 깨달아 고금의 서적을 두루 섭렵하고 능숙한 처세로써 諸賢으로부터 지략가로서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石勒과의 전투에서도 탁월한 지략과 식견으로 적들을 매 번 물리쳤다.

東漢末年 儒敎의 붕괴와 해체로 사람들은 엄격했던 道德禮敎의 굴레에서 벗어나 自我에 대한 부단한 추구하고 탐색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내재되었던 재능 역시 점차 주목을 받게 되어 魏晉 士人들의 중시를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祖逖 역시 특출한 재능과 지략이 부족한 戴淵을 멸시하였던 것이다.

京城에 대란이 일어났을 때 祖逖은 친척과 유민 수백 호를 거느리고 淮와 泗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수레에 동행하는 노인과 환자를 태우고 자기 자신은 걸으면서 약품과 의복 그리고 식량을 백성들과 함께 사용하였다. …(중략)… 祖逖은 사람들을 아끼고 아래사람들을 예우하였으며, 비록 잘 알지 못하거나 신분이 천한 노비라하더라도 은덕과 예의로써 그들을 대해 주었기 때문에 황하 이남의 지역은 모두 쫓의 것이 되었다. …(중략)… 또한 죽은 자들의 유골을 수습하고 제사를 지내주니 백성들이 감복하고 기뻐하였다.<sup>25)</sup>

또한 위의 기사는 祖逖의 愛民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상대를 예우하는 그의 고매한 기품의 人情味는 首長으로서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仁民愛物의 儒家정신을 극도로 발휘하고 있다.

24) 劉琨稱祖車騎爲朗詣, 曰:「少爲王敦所歎。」《世說新語》賞譽篇 第43條.

25) 及京師大亂, 逖率親黨數百家避地淮泗, 以所乘車馬載同行老疾, 躬自徒步, 藥物衣糧與衆共之. …(중략)… 逖愛人下士, 雖賤交賤隸, 皆恩禮遇之, 由是黃河以南盡爲晉土. …(중략)… 又收葬枯骨, 爲之祭級, 百姓感悅. 《晉書》卷62〈祖逖傳〉.

### 3. 맺음말

이민족의 침략으로 남하한 東晉은 失地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몇 차례 북벌을 진행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정치 무인들의 반역이 두려워 적극적인 反攻을 하지 못했다. 東晉은 북벌과 정권유지라는 두 가지 고민속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정권이었다. 祖逖은 이렇게 불안정한 당시 정치상황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 야심과 정치적 입지보다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한 진정한 무인이었으나 이러한 祖逖을 황제를 비롯한 위정자들은 오히려 견제하고 심지어 모함까지 하여 더 높은 관직으로의 轉任도 방해할 정도였다.<sup>26)</sup> 약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祖逖의 북벌은 무능한 정권과 부패한 문벌제도라는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수될 수 없었다. 즉 祖逖은 문벌세족이 아니라 지방 호족 출신이었기에 기득권을 쥐고 있는 문벌세족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며, 王敦과 같은 이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기는커녕 배후에서 오히려 제거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 東晉정권은 유민들의 배반을 우려하였다. 유민을 거느리고 남하한 祖逖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줄곧 의심과 견제를 받았던 것이다. 결국 충성스러운 祖逖이 죽은 후 東晉은 王敦, 桓溫, 桓玄 등과 같은 정치 무인들의 야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계속된 반란으로 쇠퇴일로를 걷다가 劉裕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얼마 안되어 祖逖이 雍丘에서 죽었는데 당시 56세였다. 豫州의 백성들은 마치 죽은 친부모처럼 상을 지냈으며, 譙와 梁의 백성들은 그를 위해 사당을 지었다.<sup>27)</sup>

26) 조정으로부터 지원이 없어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던 祖逖은 식객들이 약탈을 하였지만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여 온전하게 지켜주었으며 담당 관리들도 용인해주고 죄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논자들은 이로 인해 그를 폄하하여 오랫동안 높은 관직을 얻지 못하였다. 《世說新語》任誕篇 제23조 劉孝標 注引 《晉陽秋》 참조.

27) 俄卒於雍丘，時年五十六，豫州士女若喪考妣，譙梁百姓爲之立祠。《晉書》卷62〈祖逖傳〉。

정치의 중심에서 위협을 느낀 祖逖의 입장에서 돌과구는 아마도 북벌을 명분으로 하여 조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백성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그의 언행은 문벌세족에게 멸시를 당한 것에 대한 반동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세력으로 정권을 위협하지 않았으며 진정한 仁民愛物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였다. 친부모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사당까지 지어 후세 대대로 그를 기리려는 백성들의 모습은 祖逖의 인품과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며, 아울러 진정한 무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 《參考文獻》

- 《晉書》 臺北, 鼎文書局, 1980.  
趙炳華, 徐東轍 共著 《現代文章論》 서울, 열화당, 1977.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徐震堦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1984.  
楊 勇 《世說新語校箋》 臺北, 正文書局, 1992.  
金長煥 《世說新語》(上·中·下) 서울, 살림出版社, 1996·1997·2000.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葉朗 著 《中國美學史大綱》 臺北, 滄浪出版社, 1986.  
王能憲 《世說新語研究》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2.  
寧稼雨 《世說新語與中古文化》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范子輝 著 《中古文人生活研究》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1.  
宗白華 《美學散步》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李澤厚 著, 윤수영 譯 《美的歷程》 서울, 東文選, 1991.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中國史》 서울, 역민사, 1986.  
寧稼雨 <世說新語是志人小說觀念成就的標志>;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9.2.  
葉慶炳 <論世說新語比較人物優劣>; 《書評書目》57, 臺北, 1978.  
楊美愛 <世說新語新探-從世說新語探魏晉之思想社會與亡國>; 《弘光護專學報》 1978.6.

- 葉柏村 <世說新語中所見魏晉清談風尚>;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82.10.  
宗白華 <論世說新語和晉人的美>; 《美學與意境》, 北京, 人民出版社, 1987.  
朴敬姬 <世說新語中人物品鑒之研究> 臺灣政治大學碩士論文, 1982.  
金鎮玉 <世說新語에 대한 一考察>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83.  
李在弘 <世說新語의 內容과 言語特性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석사논문,  
1996.

### 〈中文提要〉

東晉朝廷對恢復中原的態度並不積極, 東晉時代經營北伐事業的人物有祖逖、庾亮、庾翼、殷浩、桓溫與劉裕等, 但武人多為野心家, 像祖逖這樣忠心奮發的軍事統帥, 再也沒有. 所以可以說祖逖是東晉北伐的真正的武人, 還可以說他占有東晉時代重要的一部分.

論者考量《世說新語》有鑑於《晉書》以事件作為敘事中心, 而將敘事核心突顯於人物形象該點上, 在研究方式上捨棄既存的橫向個別分析(例, 比較、比喻等表現技巧)或典型類別的分析方式, 欲採以縱的面向摘選出散置於各篇目與記事中的人物及其相關內容, 給予綜合性的人物分析.

同時, 儘管《世說新語》與《晉書》並不具現代意念的小說型態, 不過其書中人物在不同狀況下呈現出多樣面貌, 或是某些性格或是個性反覆出現在書中被加以強調及詮釋, 因此透過對人物透徹的重點強調, 可以全盤地了解該人物的形象. 本論文是論者直到現在發表的連續論文之一, 這次以東晉北伐的代表人物祖逖為探討核心, 透過此般對人物全面且多重的分析, 可將書中人物形象以及品評特徵等考察.

**關鍵詞** : 世說新語, 晉書, 東晉, 祖逖, 人物形象, 北伐

이 논문은 2010년 11월 27일에 접수되어 2010년 12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0년 12월 21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